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106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8.19~2026.08.25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8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승진(정기인사), 위성곤(민선), 희생자(유족), 공공기관(유치), 인공지능(혁신)
경제·관광	항공(노선), 수출(생산), 관광객(여행), 청년(창업), 풋쿨(농산물)
지역·사회	실종(수사), 학생(보호), 해상(구조), 법원(재판), 긴급(대응)

※ 분석 기간 : 26.08.19.~26.08.25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승진(정기인사)	- 민선 9기 첫 정기인사 '빅3' 모두 교체 - 행정시 정기인사...5급 이상 여성 약진 - 정기인사 맞춰 도청 청사 재배치 완료
	위성곤(민선)	- 위성곤-시민사회 첫 간담회 자유토론 - 제주과기원 설립 법안 국회 심의 난항 - 서귀포시장 김희찬 등 요직 인선 확정
	희생자(유족)	- 4·3 희생자·유족 349명 추가 인정 - 4·3 보상금 1276억 '돌려쓰기' 논란 - 제76주기 첫알오름 예비검속 위령제
	공공기관(유치)	- 2차 공공기관 이전 범도민 서명운동 - 치매 조기발견 바이오 기업 제주 유치 - 도-국회의원 2027 국비 확보 공조
	인공지능(혁신)	- AI 민주주의 조례 제정 논의 본격화 - 더큰내일센터 전국 일자리대상 수상 - 서귀포시 가로수 관리 혁신 전국 대상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항공(노선)	- 항공좌석 공급 안정화 TF 본격 가동 - 인천~제주 직항 단체객 탐나는전 지원 - 국내선 슬롯사용률 상위 9개 제주노선
	수출(생산)	- 7월 수출 1억6768만달러 역대 최고 - 제주, K-뷰티 수출거점 육성지 선정 - 제주 농산물 우즈베키스탄 수출 확대
	관광객(여행)	- 내국인 관광객 감소...회복 총력 대응 - 싱가포르 최대 관광박람회 제주 홍보 - 성산일출봉, 국민이 뽑은 명소 1위
	청년(창업)	-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업종 확대 -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계획 착수 - '모두의 창업' 2차 전국 1만명 모집
	풋굴(농산물)	- 제주산 풋굴 서울 도심 홍보행사 - 고향사랑 기부자에 풋굴 화장품 증정 -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개선 추진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실종(수사)	-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씨 시신 발견 - 실종사건 잇단 '허위 종결' 파문 - 석 달 늦은 수색...CCTV 영상은 삭제
	학생(보호)	- 초교 자살 시도 사건 교육감 등 고발 - 1학생 1스포츠 16개교 900명 참여 - 학교예술강사 예산·처우 개선 촉구
	해상(구조)	- 한림 해상 어선 화재...승선원 2명 구조 - 괄지 해상 어선 좌초...3명 무사 구조 - 고립된 피서객 2명 자치경찰이 구조
	법원(재판)	- '허위 종결' 경찰관 석방 뒤 구속 - 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 제청 인용 - 뇌물 도청 간부 항소심도 징역 4년
	긴급(대응)	- 실종 '셀프 종결' 차단 시스템 개선 - 위기 대응 재점검...CCTV 보존 연장 - 전직 경찰,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8월 19일~8월 25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893건임
 - 정치·행정 분야 274건, 경제·관광 194건, 지역·사회 425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송진(정기인사)**, **위성곤(민선)**, **희생자(유족)**, **공공기관(유치)**, **인공지능(혁신)**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승진(정기인사)	- 민선 9기 첫 정기인사 '빅3' 모두 교체 · 제주도가 21일 2026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예고해 25일자로 승진 137명을 포함한 총 699명 규모의 민선 9기 첫 정기인사를 단행했으며, 기획조정실장 양제윤·안전건강실장 조상범·도의회 사무처장 김인영 등 이사관급 '빅3'를 모두 1970년대생으로 교체함. · 이번 인사는 현안 해결에 기여한 직원을 우대하는 성과 중심 원칙과 '일하는 조직' 구축에 초점을 뒀으며, 민선 8기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물러나고 주력 부서에 승진자가 배치되는 등 신규 교체를 통한 정책 동력 확보에 나선
-------	----------	--

정치·행정	승진(정기인사)	것으로 평가됨. - 행정시 정기인사...5급 이상 여성 약진 · 제주시가 25일자로 승진 123명을 포함한 총 421명 규모의 하반기 정기인사를 예고해 부시장에 채종우를 임명하고 5급 이상 승진자 7명 중 4명을 여성 공무원이 차지했으며, 서귀포시도 승진 79명 등 463명 규모의 정기인사를 단행함. ·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에 부미선, 복지위생국장에 강연실이 발령된 가운데, 최근 서귀포시 4급 승진 인사에서 근무성적평정 최상위권이 아닌 인사가 발탁되는 사례가 반복돼 근평 무력화와 다양성 후퇴 논란이 제기되는 등 인사 공정성 문제도 부상함. - 정기인사 맞춰 도청 청사 재배치 완료 · 제주도가 민선 9기 조직개편과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지난 21일부터 24일 까지 청사 재배치를 마무리해 건설회관과 조선일보 건물에 있던 9개 부서를 옛 제주경찰청사로 옮겼으며, 흩어져 있던 부서가 한곳에 모여 민원인 동선이 짧아질 것으로 기대됨. · 25일에는 도청 탐라홀에서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식이 열려 과장급 이상 승진·전보자 58명과 신규 임용자 21명이 임용장을 받았으며, 위성곤 지사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당부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 창출을 주문함.
	위성곤(민선)	- 위성곤-시민사회 첫 간담회 자유토론 · 위성곤 지사가 21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선 9기 첫 간담회를 열어 사전 의제 없이 90분간 자유토론을 진행했으며, 참석 단체가 현장에서 던지는 질문에 지사와 소관 실·국장이 곧바로 답하고 도정 운영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함. · 최우선 현안으로 공언한 제2공항 갈등 해결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연상케 하는 징후가 감지되며 조기 매듭 여부가 주목받았고, 지하수 난개발과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지는 등 민관 소통 행보가 본격화됨. - 제주과기원 설립 법안 국회 심의 난항 · 위성곤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 설립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가 여러 보완이 필요하다는 우려 의견을 제시하면서 핵심 공약 실현에 빨간불이 켜짐. · 정부 각 부처도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제주과기원 설립이 첫 단계인 입법 과정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되며,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보완 논리 마련이 과제로 부상함. - 서귀포시장 김희찬 등 요직 인선 확정 · 제주도가 25일 공개모집과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서귀포시장에 김희찬 전 제주도 관광교류국장, 중앙협력본부장에 국가 공공기관 본부장 출신 강철준, 대변인에 언론인 출신 부남철을 민선 9기 요직 임용 대상으로 확정함. ·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는 21일 열린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말보다 행동으로, 약속보다 결과로 보답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적합 의견을 받아 위성곤

정치·행정	위성곤 (민선)	지사의 최종 임명 절차만 남겨두는 등 민선 9기 도정의 진용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희생자 (유족)	- 4·3 희생자·유족 349명 추가 인정 · 제주도가 지난 24일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희생자 75명과 유족 274명 등 모두 349명을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으로 추가 결정했으며, 수형인 14명도 희생자에 포함됨. · 특히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무호적 희생자 3명이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결정이 내려져, 4·3으로 왜곡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됨. - 4·3 보상금 1276억 '돌려쓰기' 논란 · 문대림 국회의원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2022~2025년 제주4·3 피해보상금 중 1276억원을 재난복구비와 인건비 등 다른 사업에 반복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하며 4·3 국가책임 예산의 정상화를 촉구함. · 문 의원은 4·3 보상금이 정부 쌈짓돈이 아닌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고, 한성숙 국무총리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형사보상금 과소 편성 문제와 함께 개선이 요구됨. - 제76주기 첫알오름 예비검속 위령제 ·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속으로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는 제76주기 첫알오름 예비검속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19일 서귀포시 대정읍 백조일손묘역에서 봉행돼 유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성곤 지사는 희생자 명예의 온전한 회복을 다짐함. · 4·3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재개와 백조일손 역사관 증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요구하는 유족 심사·결정권의 권한이양은 정부의 반대로 관련 4·3 특별법 개정안이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는 등 제도 개선 과제도 남아 있음.
	공공기관 (유치)	- 2차 공공기관 이전 범도민 서명운동 ·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제주도가 지난 2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도내 유관기관·단체를 중심으로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농업인단체협의회도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도민과 관광객 대상 서명운동에 동참함. ·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계획은 오는 10~11월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등 제주와 연계성이 높은 5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유치 총력전을 벌일 계획임. - 치매 조기발견 바이오 기업 제주 유치 · 제주도가 20일 도청 백록홀에서 혈액 바이오마커 분석을 통해 치매 등 뇌질환 위험을 조기에 확인하는 기술을 보유한 초고감도 바이오마커 분석 기업

정치·행정	공공기관 (유치)	(주)브레디스헬스케어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기업은 3년 내 10억원 투자와 연구인력 10명 이상 채용을 약속함. · 브레디스헬스케어는 대정읍에 제주센터를 조성해 치매·만성질환 예측 실증을 추진할 계획으로, 첨단 기술 기업의 연구 거점 유치를 통해 AI 바이오헬스 기반 구축과 지역 미래산업 생태계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도-국회의원 2027 국비 확보 공조 · 제주도가 21일 도청 삼다홀에서 위성곤 지사 주재로 문대림 도당위원장과 김성범 국회의원, 송영훈 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함. · 회의에서는 AX 실증과 과기원 연합캠퍼스 대응, 해상운송 공적기능·분산에너지 국비사업 점검, 축산악취 저감과 데이터센터 유치 방안 등이 협의됐으며, 사업별 절충력을 높이기 위해 도와 국회의원 간 역할을 분담하기로 합의함.
	인공지능 (혁신)	- AI 민주주의 조례 제정 논의 본격화 · 한권 도의원이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인공지능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해 인공지능 기본법(AI 기본법)을 제주에서 풀어내기 위한 조례 제정 논의를 본격화함. · 좌담회에서는 AI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책임성 확보가 과제로 제시됐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는 제도적 기반 마련 논의가 제주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더큰내일센터 전국 일자리대상 수상 ·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사업이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사업 부문 우수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전국 일자리 정책 우수사례로 선정됨. · 제주더큰내일센터는 제주형 혁신인재 육성과 청년의 역량 진단, 취·창업부터 지역 정착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혁신인재 양성 모델의 성과가 전국 단위에서 인정받으며 청년 일자리 정책의 위상을 높인 것으로 평가됨. - 서귀포시 가로수 관리 혁신 전국 대상 · 서귀포시가 산림청 주관 2026년 가로수 조성·관리 우수사례 공모에서 '시민참여형 실명제와 가로수 수간주사로 가로수 관리 혁신'을 주제로 응모해 전국 지자체 중 최고의 행정 혁신 사례로 평가받으며 대상을 수상함. · QR코드 기반의 시민참여형 가로수 실명제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관리 방식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행정 혁신 사례로서 가로수 조성·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인정됨.

경제·관광	항공 (노선)	· 광규택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운항계획을 1000편 이상 제출한 노선을 대상으로 최초 운항계획 대비 슬롯사용률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노선 중 9개가 제주 노선으로 나타나 제주 노선의 높은 운항 수요가 확인됨. · 제주행 항공권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관광산업 위축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으로, 도민 항공이동권 보장과 좌석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논의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수출 (생산)	- 7월 수출 1억6768만달러 역대 최고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제주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417.3% 증가한 1억6768만달러를 기록해 종전 월간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 4월 수출액 1억1000만달러를 크게 웃돌며 역대 월 최고액을 경신함. · 반도체 수출 호조에 항공기 분야 신규 수출이 가세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했고 농수산물의 성장세 지속과 소비재 호조도 이어졌으며, 수입은 2.4% 증가한 8354만달러로 무역수지는 8414만달러 흑자를 기록함. - 제주, K-뷰티 수출거점 육성지 선정 · 제주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K-뷰티 수출거점 육성사업 대상지로 경북 경주와 함께 선정돼 국비 45억원을 포함한 3년 규모 사업으로 팝업스토어와 상생 체험관, 바이어 상담 등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됨. · 풍부한 천연자원과 연구개발 기반이 최적지로 평가받은 결과로, 제품 개발·생산 지원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를 K-뷰티 글로벌 진출 중심지로 집중 육성해 제주 화장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나설 계획임. - 제주 농산물 우즈베키스탄 수출 확대 · 제주시농협이 지난 18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현지 최대 규모 슈퍼마켓 체인 까르징카, 수출입 전문회사 성신엘애피(주)와 제주산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수출 시장 다변화에 나섬. · 제주시농협은 우즈베키스탄 농업부를 방문해 압둘주호르프 차관 등 관계자들과 만감류·키위류 등 수출 품목 확대와 검역 요건 완화를 위한 실무 협의도 진행해, 제주산 농산물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됨.
	관광객 (여행)	- 내국인 관광객 감소…회복 총력 대응 · 제주도가 21일 위성곤 지사 주재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 관광분야 회의를 열어 상반기 내국인 관광객 6.4% 감소와 외국인 31.9% 증가, 국내선 좌석 37만석 감소 등 관광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함. · 다음달 추석 성수기를 내국인 관광객 감소 추세를 바꿀 터닝포인트로 정해 항공 좌석난 해소와 콘텐츠 강화에 나서기로 했으며, 항공 접근성 협의체 추진과 가을 관광수요 선점, 영세 관광업 특별보증 시행 등으로 관광시장 회복을 강화할 계획임. - 싱가포르 최대 관광박람회 제주 홍보 ·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싱가포르 엑스포홀에서 열린 현지 최대 규모 국제관광박람회 '2026 나타스 홀리데이'에 참가해 공동홍보관을 운영하며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침. · 현지 소비자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사계절 제주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도내 관광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세일즈 활동을 추진했으며, 제주홍보관

경제·관광	관광객 (여행)	주변으로 관람객이 몰리는 등 동남아 관광시장 공략의 성과가 기대됨. - 성산일출봉, 국민이 뽑은 명소 1위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X100 프로젝트' 국민투표에서 성산일출봉이 국민 4만여명이 직접 뽑은 대한민국 명소 가운데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1위에 오름. ·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100개 여행 주제별 명소 9883곳(중복 제외 6336곳)이 선정돼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연계된 별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성산일출봉의 최다 득표로 제주 대표 자연 명소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함.
	청년 (창업)	-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업종 확대 · 제주도가 청년을 신규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운영지침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5인 미만 음식점업·숙박업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개정 지침은 소매·운수·금융·보험업까지 지원 업종을 확대해 업종 문턱 없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계획 착수 · 제주도와 제주노동권익센터가 19일 '제주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도내 관광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노동자를 위한 첫 중장기 지원계획 마련에 속도를 냄. · 연구에서는 근로실태와 안전보건, 사회안전망 등을 조사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설계할 예정으로, 청년근로자들이 일하며 머물 수 있는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모두의 창업' 2차 전국 1만명 모집 · 제주도가 지난 20일 접수를 시작한 국가 창업 사업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 창업협의체·창업지원 유관기관과 함께 온·오프라인 홍보에 집중하며, 오는 9월 17일까지 전국 1만명 규모로 참여자를 모집함. · 이번 2차 모집은 모집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 업력을 7년 이내로 완화했으며, 제주지식재산센터 IP창업존도 제50기 IP 창업교실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하는 등 예비창업자와 청년의 창업 도전을 뒷받침하는 지원이 이어짐.
	풋굴 (농산물)	- 제주산 풋굴 서울 도심 홍보행사 · 제주도와 농협제주본부, 제주감귤연합회가 24일 서울 농업박물관에서 직장인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청정 제주산 풋굴 홍보행사'를 열어 풋굴청 시음과 키트 나눔을 진행하며 풋굴의 기능성과 우수성을 알림. · 풋굴 출하기인 8월 1일부터 9월 15일에 맞춰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풋굴에이드 먹어봐?'를 주제로 직장인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도심에서 진행돼 수도권 소비자 공략에 나섬. - 고향사랑 기부자에 풋굴 화장품 증정 · 제주도가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남방큰돌고래, 꽃자왈, 오름 곤충서식지 등 제주 지정기부금 사업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기부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50

경제·관광	풋굴 (농산물)	명을 선정해 지역 우수 답례품인 '풋굴 화장품 3종 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함. ·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활성화와 풋굴을 활용한 지역 특산 가공품 홍보를 연계한 것으로, 기부 문화 확산과 함께 제주 환경보전 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개선 추진 · 제주도가 당근·양배추·브로콜리 등 제주 특화 농산물의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 없이 도 자체 기금으로 운용되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품목별 사업비 배분 기준 재정비와 절차 간소화에 나섬. · 한편 제주도의 2026 농축산식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농가는 소득 전국 1위에도 불구하고 영농자금과 하우스 시설 등에 적지 않은 자금이 소모되며 부채도 전국 1위를 기록해,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부각됨.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실종(수사), 학생(보호), 해상(구조), 법원(재판), 긴급(대응)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실종 (수사)	-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씨 시신 발견 · 지난 5월 12일 실종된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숲에서 합동 수색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견됐으며, 법치의원 치아 감정 결과 장씨와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와 실종 104일 만에 신원이 확인됨. · 부검 결과 특이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팔찌·반지 등을 그대로 착용한 상태로 경찰은 범죄 연루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과 DNA 긴급 감정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 규명 수사를 본격화함. - 실종사건 잇단 '허위 종결' 파문 · 장미란씨 실종사건을 담당한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보고해 신고 접수 약 3시간 만에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를 관리목록에서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음. · A경장은 지난 7월 2일 접수된 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해당 남성이 실종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자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초동 대응을 강하게 규탄하는 등 파문이 확산됨. - 석 달 늦은 수색...CCTV 영상은 삭제 · 경찰의 허위 종결로 초기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장미란씨 수색은 실종 3개월이 지나서야 시작돼 제주경찰청이 서부경찰서와 기동대, 해경 지원 속에 한림읍 일대에서 체취증거견까지 동원한 집중수색을 벌였으나 동선 추적에 난항을 겪음. · 한동훈 국회의원실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영상 열람을 요청하지 않아 실종 지점 인근 공공 CCTV 118대의 영상이 자동 폐기돼 행적을 추적할 결정적 단서가 사라졌고, 가족들도 SNS 등을 통해 직접 수색에 나섬.
지역·사회	학생 (보호)	- 초교 자살 시도 사건 교육감 등 고발 · 지난해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자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 학생 학부모가 21일 고의숙 교육감과 김광수 전 교육감, 전·현직 교육청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함. · 정치하는엄마들은 25일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이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고 구조자를 거짓 보고했다고 지적하며, 사건 인지 이후 학생자살 시도사안 보고서가 생산되지 않은 경위를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특정하라고 요구함. - 1학생 1스포츠 16개교 900명 참여 · 학생들이 원하는 스포츠 종목을 선택해 배우는 제주도의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이 올해 1학기 16개 학교 9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운영됐으며, 2학기에도 도내 초등학교 16곳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재개됨. ·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학생 수요조사를 통해 선택된 양궁 등 다양한 종목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학교예술강사 예산·처우 개선 촉구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가 20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속된 사업 예산 삭감으로 학교의 예술교육 수업이 줄어들었다며 학교

지역·사회	학생 (보호)	예술강사 예산 확대와 처우 개선을 촉구함. · 노조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 지난 27년간 국악과 연극, 무용, 영화 등 다양한 예술교육을 제공해 왔으며, 학생들이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중요한 공교육인 만큼 약속한 예산 증액과 처우 개선을 지키라고 요구함.
	해상 (구조)	- 한림 해상 어선 화재...승선원 2명 구조 · 20일 오후 4시 27분께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이호선적 9.77t급 연안복합어선 기관실에서 불이 나 바다로 뛰어든 승선원 2명이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으며, 해경이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해 진화에 나섬. · 불이 난 어선은 1차 진화 뒤 한림항으로 예인되던 중 다시 불길의 치솟아 해경이 재차 진화에 나서 추가 피해를 막았으며, 승선원 2명은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돼 해경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임. - 광지 해상 어선 좌초...3명 무사 구조 · 23일 새벽 2시 39분께 제주시 애월읍 광지포구 북동쪽 약 400m 해상에서 제주선적 연안선망어선(7.93t)이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승선원 3명은 모두 선단선에 의해 무사히 구조돼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 · '줄음 운항'을 하던 어선이 좌초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명피해 없이 구조가 마무리됐으며, 해경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등 여름철 해상 조업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고립된 피서객 2명 자치경찰이 구조 · 지난 23일 오후 2시께 서귀포시 중문동 도릿밭 포구 인근에서 풍랑주의보 속에 물놀이를 하다 높은 파도와 강한 조류에 밀려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피서객 2명이 순찰 중이던 서귀포시순찰대 소속 자치경찰에 의해 무사히 구조됨. · 윤선진 자치경사와 이진혁 자치순경이 신속한 구조로 인명피해를 막았으며, 기상특보 속 무리한 바다 수영과 물놀이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서객들의 각별한 안전 주의가 요구됨.
	법원 (재판)	- '허위 종결' 경찰관 석방 뒤 구속 · 제주지방법원이 24일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했으나,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A경장이 석방 하루 만에 구속됨. · 법원은 체포적부심에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긴급체포 절차를 문제 삼았으며, A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섬. - 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 제청 인용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속칭 '제주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진보 인사들의 재판과 관련해 변호인이 신청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인용하는 이례적 결정을 내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됨. ·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지되며, 국가정보원이 2022년 12월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시작된 사건의 향방이 국가보안법 조항의 위헌성 판단에 좌우될 전망이다.

지역·사회	법원 (재판)	- 뇌물 도청 간부 항소심도 징역 4년 · 관급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차량 2대와 치과 치료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이 1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뇌물이 아닌 빌린 것이라고 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직무 관련 뇌물을 인정하고 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제21대 대선 과정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들도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이어짐.
	긴급 (대응)	- 실종 '셀프 종결' 차단 시스템 개선 ·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을 계기로 경찰청이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전산상 실종 사건을 단독으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했으며,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전수조사에 나섬. · 실종자 관리 시스템의 종결 사유를 이중 확인하는 보완책이 마련됐지만 성인 실종 시 강제 수색 규정이 없어 법률적 공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실종 대응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위기 대응 재점검...CCTV 보존 연장 · 위성곤 지사가 24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실종을 비롯한 위기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히고, 실종자 행적 추적의 단서가 되는 공공 CCTV 영상 보존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함. · 한성숙 국무총리도 경찰청에 실종 여성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한 장난전화와 가짜뉴스 등 2차 가해에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으며, 제주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조롱·비하 등 2차 가해에 강력 대응에 나섬. - 전직 경찰,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 · 서귀포경찰서가 지난 23일 서귀포시 남원읍 한 주택에서 이혼 소송 중인 5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전직 경찰관 50대 A씨를 25일 경기도 모처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함. ·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1일 '죽고 싶다'는 메모를 남겨 실종 신고된 상태에서 22일 제주에 입도했으며,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의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이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